
6) Millennium 시대의 방사선 공직자의 역할

서울시립동부병원 방사선과 육종영

사람으로부터 향기가 풍긴다고 한다면 비단 특출한 예술가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학문의 대가, 과학의 석학, 기술, 기능의 명인들한테서도 각자 특유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것이다. 한 세기가 끝나고 새 천년을 목전에 둔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발전하기 때문에 가닥을 쉽게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전문화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국이후 초유의 경제 대난국 IMF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평생 생업터로 여겨왔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다.

우리 공직사회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어 함께 얼굴을 맞대던 동료들을 Pool이라는 곳으로 보내야 했던 가슴 쓰라린 기억들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철밥 그릇이라 했던 공무원 사회가 그 직에 합당한 기술과 지식을 겸비하지 못하면 퇴출되고야 만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립동부병원 방사선과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 새천년의 변화무쌍한 기술과 정보화의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사선 공직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본인이 시립병원 방사선과에서 십삼년간 근무해 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나름대로 문제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 모르나 적어도 생존전략의 처절한 심정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7)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봉보건소의약과 서재룡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 이용분야도 발전, 산업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인류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방사선 이용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반면에 이로 인한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의료에 이용되는 의료용 방사선도 이에 예외는 아니어서 의료분야에 이용되는 의료용 방사선의 폭넓은 사용은 우리에게 질병의 진단과 치료라는 이익을 가져다준 반면에

환자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사선방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은 국민의 피폭선량감소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1월 7일 의료법이 개정됨으로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의료기관의 관리자나 일선행정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단순히 규칙에 의한 장치의 보유 유·무를 신고하는 것으로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제정 취지에 부합되고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방사선의 이용과 최소의 방사선조사로 의료피폭을 감소화하고 정확한 환자진단을 위한 영상관리를 하고자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